알렉산더 콤리와 성령의 인치심(2)

빌름 판 엇 스페이커르(아플도른신학대학 명예교수, 교회사)
번역: 이신열(고신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콤리는 칭의에 있어서 네 가지 단계를 구분하는 신학에 자신을 연결시킨다. 여기에서 칭의의 네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원으로부터의 칭의,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칭의, 셋째,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칭의, 넷째, 인간의 의식 속에서의 칭의. 그는 이 구분을 통해서 이 개념들을 서로 분산시키려고 의도하지는 않았다. 그는 칭의를 전체(totum)로서 조망하기를 원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의 개념을 파악하면서도 전체를 연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콤리는 칭의의 수혜자에게 은혜가 철두철미하게 은혜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철학적 능력을 활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여기에 신앙이 함께 논의될 때,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신앙적 능력으로 칭의의 영역에 결코 아무것도 추가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신앙의 모든 효력에 앞서 영원으로부터의 칭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는 하나님 자신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는 영원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인간은 완전히 배제된다. 여기에서 콤리는 타코 하요 판 덴 호네르트(Taco Hajo van den Honert, 레이든 대학) 교수가 작성한 작은 요리문답서에 의존하였는데 이 문답서에는 칭의가 성부,

*) 이 글은 W. van't Spijker, *De verzegling met de Heilige Geest*, 145-153의 번역이다.

성자, 그리고 성령 사이의 평화협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묘사되었다. 영원으로부터의 칭의는 이 신적 협약 내에서 발생한다. 이에 근거해서 택자들에게 신앙의 능력이 부여되며 그리스도는 이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의 부활은 칭의의 새로운 측면을 의미한다. 그로부터 택자들은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선포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보존하시는 것이다. 신앙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영원에 있어서 어떤 생각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어떤 언설도,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천상의 의식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도, 수용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에 법정에 관한 두려움을 심어주시기 전에 우리의 신앙은 기능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법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천상의 법정을 의식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에 주어진 내용이 정당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은 답변하기에 단순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우리 생각에 의하면, 성경은 이러한 논리적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 교의학에는 때로는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조수단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콤리가 교의학에서 내세운 방식이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가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 콤리는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사실상 모든 구원은 영원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이 최종적인 것도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콤리에 의하면 분명한 의식을 지니지 못한 많은 신자들이 존재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면해 주셨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콤리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

문은 "칭의함을 받은 것을 내가 발견하는가?" "내가 칭의함을 받았는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의(righteousness)가 나에게 있음을 보시게 될 때, 그가 나를 칭의함을 받은 자로 간주하실까?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콤리는 목회를 염두에 두었으며, 목자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죄인의 칭의에 관한 편지(*Missieve over de rechtvaardiging van de zondaar*)〉에는 이런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믿음이 적은 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결정적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의 복음은 협소하거나 답답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칭의와 의식 속에서의 칭의에 대한 구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구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제시될 수 있는가? 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를 위한 사고의 폭에 해당된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한 분인가? 그분은 누구에게 제공될 수 있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순히 일반적 의식을 지닌 자들과 자신들의 죄책에 대해서 진정한 슬픔을 느끼는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해서 미리 말할 수 없다고 콤리는 판단한다. "나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칭의와 의식 속에서의 칭의가 어떤 사람도 관련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지에 관한 구분을 우리가 미리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은 구원에 이르는 사역을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완전한 예수를 제공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려움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아니한다: "당신이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당신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겁을 주어서 도망치도록 만들지 아니한다. 만약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다면, 그들은 악마처럼 행동하는 것이며 손에 불신앙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장악하기 위한 자리를 다른 사람들의 의식 속에 마련하는 것이며 사물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음으로써,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살해하거나 또는 불신앙의 능력 속으로 그리고 악마적 싸움을 견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콤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칭의와 우리 의식 속에서의 칭의 사이의 구분이 용기가 부족한 자들을 북돋아 주고 사물의 완성을 가져올 것을 확신한다. 우리 마음속의 신앙에 확신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만 아니라 나에게도 죄 용서를 허락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사역하시는 것보다 앞서 완전함을 칭의에 주지 아니하신다. 이미 영원한 의와 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선택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거나 숙고할 수 있도록 금접시를 주신 것도 아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이는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콤리는 자신의 청년 시절에 한 경건한 노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회상한다: 여름과 겨울이 흘러가서 세월이 지나가도록 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격언은 모든 섣부른 판단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자유로운 은혜를 너무 폭넓게 설교했다고 비난 받았던 러더포드(Samuel Ruteherford,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1600-1661, 1643년부터 1647년까지 개최되었던 웨스트민스터회의의 참여자)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나는 자녀들에게 빵을 나누어줄 것이며 개의 이빨을 부숴 버릴 것이다."

콤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칭의를 다음과 같이 형용사를 사용하여 묘사한다: 목회적이며 폭이 넓은.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모든 것, 즉 신앙, 중생 그리고 회심에 선행한다. 하나님은 이 칭의가 복음을

통해서 설파되도록 하신다. 이것이 약속에 있어서 부으심의 의미에 해당된다. 그러나 메시지가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마음의 법정에서 죄 용서가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관해서 콤리는 자신의 〈칭의에 관한 편지(*Brief over de rechtvaardigmaking*)〉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즉 죄인 바깥에서,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법정을 움직이시는데 이는 거기에서 어떤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법정을 움직이시는데 여기에서 법정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영혼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죽은 영혼을 만지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이 영혼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 결과 모든 것 가운데서 참되게 살아있는 영혼을 지닐 수 있게 되어 영혼은 민감하고 생동감 있게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완전히 체포하신다. 그리고 이는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죄인이 자신에게서 죄책을 발견하기 전에 발생하고 또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죄, 즉 자신의 실제적 죄, 마음속의 죄, 태생적 죄, 그리고 태만의 죄 등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논의된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살아 있는 신앙, 즉 신앙의 효용성에 대해서 논의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야 하며 자신이 소유한 것을 스스로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귀결됨을 뜻한다. 이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가이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조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부어주심은 우리 믿음에 선행하며 이에 대한 초석을 형성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 콤리는 에베소서 1:13에 대한 설교에서 성령의 인치심에 관한 자신의

가장 탁월한 견해를 제공한다.

구원을 제공하는 〈신앙의 독특한 특징에 관한 고찰(*Verhandeling van enige eigenschappen van het zaligmakend geloof*)〉에 포함된 이 설교에서 콤리는 먼저 신앙과 성령의 인치심의 관련성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다. 동일한 설교의 후반부에 가서 그는 특히 두 개념의 관련성과 논리적 순서를 논의한다. 그에게 신앙은 복음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서 이는 영혼의 효용성과 관련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죄인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게된다. 이것은 자유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다. 신앙이 하나님께 자신을 소유물로 드리기 때문에 신앙은 성령의 인치심에 선행한다. 그 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징표를 영혼에 부여하신다.

신자가 언제 인치심을 받는가의 문제를 다루면서 콤리는 이 설교의 두 번째 부분에서 신앙과의 관련성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한다. 인치심은 신앙에 선행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이것은 신앙 자체가 아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습을 뒤따르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다. 그리스도에 참여함에 대한 확신을 신앙의 본질적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느끼는 것이다. 성령의 행위는 신앙의 본질적 연습에 뒤따르는 것이며 이는 곧 신앙과 신앙의 본질적 연습을 뒤따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인치심을 성화의 삶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아무런 의심의 여지없이 모든 신자들이 이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콤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인치심을 성령께서 신자들의 영혼이 은혜에 참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인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정의한다면, 이 행위는 신앙을 뒤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행위 다음에 얼마나 먼저 또는 얼마나 뒤에 이 특별한 성령의 사역이 발생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인치심을 오랜 기간 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도 있으며, 신약 성

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죽음의 두려움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은 채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되므로 내적 즐거움 가운데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면서도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었음을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에 참여하는 것을 인치는 것은 보통 많은 투쟁 후에 발생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성령의 사역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차원에 까지 이르지 못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콤리가 실제로 아 브라켈(a Brakel) 보다 더 많이 발전하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신앙에서 주어진 것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며, 몇 가지 철학적 개념들을 도입한다. 그러나 브라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성령의 인치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신앙과 인치심은 서로 분리된다. 그는 인치심을 구원에 대한 개인적 확신으로 정의하며 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다고 밝힌다: 나는 확신한다! 콤리에게 이것은 일종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인정되고 이런 방식으로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것을 가리킨다. 세상은 마치 큰 배와 같으며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이 배 안에 두시며 이들에게 자신의 소유됨에 대한 표징을 주신다. 이 표징이 발견되는 곳에, 주님의 소유됨에 대한 권한이 확인된다. 장키우스(Zanchius)가 이에 대해서 기술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콤리는 인치심의 이미지에 대한 두 번째 측면을 말한다. 성령께서 자신의 인장을 밀랍(wax) 속에 넣어 두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영혼 속에 새겨진다. 콤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생각한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우리는 성화를 향해 전진하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강화되는 것과 평행적으로 이루어진다. “인치심은 영원한 영광의 희망 가운데 신자의 영

혼이 강화되고 확신을 얻는 것을 포함한다. … 그들이 자신들의 슬픔에서 벗어나서 지금 확실하고 견고한 보증을 지닌 기업을 누리게 될 것 또한 포함된다."

우리는 콤리가 신앙의 확신을 회귀적 행위로 언급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또한 그가 성령의 인치시는 행위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역의 확실성을 의도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인치심은 우리에게 언약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권리를 제공한다. 비록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을 실제로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더 좋은 것에 대한 보증에 해당된다. 이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용기를 얻게 되는 마음의 끈에 해당된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보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과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자신에 대해서 내적으로 돌아서는 것,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즐거운 판단을 내리는 것,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 죄에 대한 심판에 동의하는 것, 주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고소하는 것 등.

여기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죄에 대한 지식, 죄에 대한 슬픔 등과 함께 다루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콤리는 인치심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추가한다. 신자들은 마치 겨자씨처럼 작으며, 꺾여버린 갈대처럼 연약하며, 두려워떨고 염려하지만, …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피하게 함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도록 이끄신다.

이렇게 피함으로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만족함, 필요함, 그리고 준비됨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야 함을 발견하게 하

신다. 지금까지 다루어 온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 본다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니고 있는 믿음의 행위보다 더 강한 것이다. 또한 명료성이 없는 곳에도 (신앙의 정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이 존재하지만, 이는 덜 분명하고 덜 명료한 것이다.

성령의 인치심의 중요한 측면은 이것이 빛을 제공하여 영적 자기 성찰이 더 많은 열매, 즉 더 높은 명료성과 더불어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이런 관점에서 성령의 사역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특징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내부로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육체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 그분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신자에게 용기가 주어진다. 이 모든 것이 말씀과의 정확한 관련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결여될 때, 자기기만과 열광주의와 광신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험이 다가오게 된다.

콤리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림을 통해서 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는 신앙의 길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여기에서 특히 이 길의 심리적 측면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측면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주로 신자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묘사가 아주 일반적이며 또한 전형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영적 사실의 묘사에 있어서 아주 많은 요소들이 쉽사리 콤리가 참된 신앙의 특징들에 대한 그의 논의에서 가장 탁월하게 다루었던 여러 종류의 다른 주제들로 회귀한다는 사실이다.

콤리가 자신의 철학적이며 논리적인 접근으로 인해 신앙의 길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을 회피하고 이를 마치 영원에서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위험에 놓여 있다고 이미 우리가 지적한 바 있다. 따

라서 신앙생활은 아무리 심오하다 하더라도 엄청난 영원 속에서 우리에 관하여 그리스도안에서 이미 결정된 바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의식화의 방식은 심리적 체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제 우리는 이 심리적 사건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모든 것이 서로를 향하여 흐르며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의식의 그룹으로 회귀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죄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것과 구원 추구와 관련된 것을 들 수 있다. 이제 성령의 인치심은 대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식이 어느 정도의 명료성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적 조명의 문제로 회귀된다.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방식, 즉 동일한 신앙의 모든 개념과 측면은 분명하게 표시되고, 인식되며 체험된다. 확신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라게 된다. 콤리에게서 브라켈과 아주 유사하지만 분명히 차이점도 발견된다. 콤리는 더 깊은 경지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브라켈은 단순한 자들을 위해서 추천되어야 한다고 경건한 자들이 지적한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의 목적과 관련해서 양자는 서로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의 의도는 목회적인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에 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들은 어둠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자 한 것이었다. 복음에서 발견되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설교는 배우려는 자들에게는 부드러운 것이며, 목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는 칭찬받을만한 영적 접근 방식에 해당된다. 그러나 영혼의 수줍음은 복음의 약속이 더 이상 능력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목회적 신학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신학은 나데르 레포마치(de Nadere Reformatie)의 시작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영혼을 위해서 하늘을 맑도록 만들었다.

이제 시간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얼마나 흘러갔던가! 루터와 칼빈이

알았던 것은 신앙의 능력과 신앙의 행위, 발출적 신앙과 회귀적 신앙, 그리고 직접적 행위와 반사적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람들이 인정했던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에 관해서 이러한 관심의 전환이 주목받지 못하게 된 것도 이 사실의 결과에 해당되는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에, 교회사에 나타난 중요한 순간들에 대한 비교가 이 질문을 답변함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